

# 강진피싱마스터스 감성돔 낚시대회 열린다

### 군, 27일 마량항 일원...소형 어선서 올해 첫 대회 생동감·현장감 느낄 수 있는 선상낚시 경험 제공

강진군의 히트 상품 중 하나인 바다낚시 대회에 올해도 낚시 애호가들을 끌어 모은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27일 마량항 일원방파제 일원에서 '2026 강진피싱마스터스 강진군수배 감성돔 선상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낚시인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강진 앞바다의 우수한 낚시 여건과 마량항의 해양관광 기반을 전국에 알리고, 선상낚시를 강진군 대표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군은 감성돔을 대상어종으로 한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낚시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마량항 일원에 활력을 불어넣는 해양스포츠 축제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성돔 선상낚시대회는 기존 9.77t급 낚시어선 중심으로 운영됐던 대회 방식에서 벗어나 소형어선으로만 진행되는 첫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강진군은 소형어선 특유의 기동성과 현장감을 살려 감성돔 낚시의 매력을 높이고, 참가자들이 보다 생동감 있는 선상낚시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회 참가 인원은 150명이며,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가비는 1인당 15만원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낚

시인은 강진피싱마스터스 홈페이지(www.mastersmgn.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총 2350만원 상당의 시상 규모로 진행된다. 1위에게는 1000만원, 2위 500만원, 3위 300만원, 4위 150만원, 5위 100만원이 수여되며, 6위부터 10위까지는 각 30만원, 11위부터 20위까지는 각 10만원, 21위부터 30위까지는 각 5만원 상당의 상상이 이어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강진군수배 감성돔 선상낚시대회는 소형어선으로만 진행되는 첫 대회로, 기존 대회와는 또 다른 박진감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며 "강진 앞바다의 우수한 낚시 여건과 총 2350만원 상당의 시상 규모를 바탕으로 전국 낚시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지난해 열린 2025년 강진피싱마스터스 대회에 출항을 준비중인 낚시선박들 모습.

### 해남 60세 이상 군민 대상 '치매조기검진' 연중 무료

해남군은 치매 조기 발견과 증증화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은 해남군 치매안심센터는 물론 가까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전문 도구를 활용한 '치매인지선별검사(CIST)'로 진행된다. 검사 시간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된다.

특히 지동이 불편하거나 보건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함께 운영해 검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또 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와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최종 치매로 진단될 경우 치매 치료 약제 지원, 조호 물품 제공 등 맞춤형 치매지원서비스가 통합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수록 치료효과가 높다"며 "60세 이상 군민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 연 1회 기억력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빛으로 꾸며지는 색다른 진도의 밤 즐겨요”

### 군, 6일 문화도시센터·남도국악원과 '굿데이 굿음악축제'

진도군은 오는 6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철마광장 일대에서 진도군문화도시센터, 국립남도국악원과 함께 '굿데이 굿음악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굿데이(Good Day) 오늘, 가장 좋은 날'을 주제로 진도의 전통 민속예술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야간형 문화예술축제로 마련됐다. 공연, 체험, 먹거리, 빛 연출이 어우러진 참여형 축제로 운영되며,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4일부터 진행되는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 야외 행사인 '굿음악축제'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조명과 빛 연출을 활용한 야간 공간이 조성되는데 해가 지면 철마광장 일대는 하나의 거대한 '빛의 판'으로 바뀌며, 진도의 밤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주요 공연으로는 전통연희와 국악 기반 공연, 관객 참여형 거리공연, 현대적

각각을 더한 창작공연 등이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지역상인과 청년 판매자가 참여하는 장터도 열려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진도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진도의 전통과 사람, 거리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라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진도의 밤을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 완도군, 민관 합동 재난 예방 집중 안전점검

완도군은 일상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안전 점검은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전

문서를 대폭 강화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숙박 시설과 다중이용 시설, 교통 시설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 시설 총 78개소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

는 사용 제한 등 긴급 조치를 선행했다. 이후 체계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홍용 완도군 안전총괄과장은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인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집중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영암, 생성형 AI 활용 행정혁신 역량 '속도'

### 초·중·고급 단계별 학습...공직자 실무 활용능력 강화

영암군이 생성형 AI를 행정 실무에 적용하는 공직자 실습 교육을 단계별로 운영하며 업무 효율화와 행정혁신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맞춤형 AI 자동화 실무 적용 교육'을 진행했다.

초급과정인 제1차 교육에는 107명, 중급과정인 제2차 교육에는 116명이 수료해 총 223명이 교육을 마쳤다.

교육은 각 업무 특성에 맞는 생성형 AI 활용 기초부터 업무 자동화 실습까지 단계별로 진행됐으며,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을 익히는데

중점을 뒀다. 영암군은 6월 고급과정을 통해 업무 활용 자동화 챗봇 만들기, AI 기반 엑셀 자동화, 클라우드 코드 활용 등 교육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 지난달 군청에서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 핵심분야 직무역량 강화 교육'에서도 AI 분야를 주요 과제로 편성해 AI 활용 역량의 중요성과 실무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영주 영암군 홍보전략실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AI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영암군이 생성형 AI를 행정 실무에 적용하는 공직자 실습 교육을 단계별로 운영하며 업무 효율화와 행정혁신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영암군청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